

# 광주시, 세계 'AI 표준도시' 선정

### IEEE 글로벌 인공지능표준위와 업무 협약... 연구원 등 설립 이용섭 시장 "광주, 인공지능 국제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것"

'인공지능(AI) 수도'를 선포한 광주시가 세계 인공지능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IEEE와 '글로벌 인공지능 표준연구원' 설립(광주일보 2020년 2월 19일자 1면)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세계 여러 국가들과의 경쟁구도 속에 반년 가까이 IEEE와 물밀접촉을 해온 광주시는 표준연구원이 설립되면 전 세계 AI기술의 기준점을 정하는 국제 표준도시가 되고, 인공지능 생태계에서의 위상도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19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IEEE(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글로벌 인공지능표준위원회와 세계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 표준화 사업협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와 IEEE 인공지능표준위원회는 앞으로 인공지능 표준 공동연구와 개발을 통해 상호운영성 및 교환 등에 제한받지 않고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주요 협약내용은 ▲IEEE 인공지능표준연구원 및 인공지능교육센터 광주 설립

▲제3회 IEEE 인공지능 테스트 국제 컨퍼런스 광주 개최 ▲인공지능 표준화 기반 기술 공동연구 및 개발 ▲인공지능 인재 양성 프로그램 기획·공유·참여 ▲광주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정책 자문 지원 등이다.

광주가 유지를 추진중인 인공지능표준연구원은 인공지능 시스템 오픈소스 표준, 보안기술 표준, 칩 생산 표준, 디지털 데이터와 자연어에 대한 표준 등 인공지능 산업 분야의 국제 규격과 국제 주요 표준 등을 제정하게 되며, 각종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중심의 초연결 사회가 가져올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내년 광주에서 개최 예정인 IEEE 인공지능 테스트 국제 컨퍼런스는 인공지능의 새로운 이론, 방법론, 기법, 프로세스 모델 등에 대해 연구결과를 교환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국제 포럼과 5개의 컨퍼런스가 동시에 개최되는 컨퍼런스로, 올해는 영국에서 개최된다. 광주시는 내년 제3회 컨퍼런스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투피 살리바 IEEE 인공지능표준위원회 위원장은 "광주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여러 여



이용섭 광주시장이 19일 오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광주시·IEEE 인공지능 표준위원회 AI표준연구원 및 AI교육센터 설립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업무 협약서 서명 후 투피 살리바 IEEE 인공지능표준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과 IEEE가 협력하면 한국이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세계 인공지능 기술과 안전, 윤리 등 제반적인 사항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표준위원회가 광주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공지능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광주의 위상을 가능케 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주에 인공지능표준연구원이 건립

되면 광주는 인공지능의 국제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특히 "보안, 국제표준화 등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예산과 인력이 몰리면서 인공지능은 '광주'로 통한다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이번 만남이 광주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고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회식시간, 주52시간제에 포함되지 않아”

### 靑, '코로나19' 관련 경제계 건의 전폭 수용...관세특례 확대 등

청와대는 19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된 경제계의 모든 건의를 전폭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인들은 앞서 문 대통령의 간담회에서 회식시간이 주 52시간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는 것을 비롯해 ▲중국현지 공장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화학물질 취급 인허가 시간 단축 ▲관세특례 확대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 6일만에 청와대가 경제인들의 건의에 대한 '전폭 수용' 의사를 밝힌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단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민간 기업의 투자와 고용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의지를 최대한 부각하겠다는 생각도 엿보인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지난 13일 개최된 코로나19 대응 대통령과 경제계의 간담회에서 제시된 경제계의 총 16개 모든 건의사항을 수용, 신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이는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특히 비상한 시기를 만큼 실감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윤 부대변인은 삼성전자가 채용 부회장이 제안한 '내수 진작을 위해 회식이 주 52시간제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이미 '자율적 회식은 근무시간에 포함 안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건의한 '혁신자 발생 시 공장 부분가동 가능하도록 중국과 협의요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부터 협의를 해왔으며 이후에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반도체 부품 원활한 운송을 위한 한중 화물기 감속 최소화' 건의에는 "현재 감속계획 없으며 증편 요청 시 즉시 허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언급한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강화'에 대해서도 "콘텐츠 투자 펀드 신설 등 지원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고, 한중 문화협력 협의 요청 역시 "문화분야 고위협력 채널을 통해 중국의 제재완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이명박 2심 징역 17년... 다시 구속 수감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뇌물액이 늘어남에 따라 형량도 2년 늘었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

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수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 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애초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 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수비 대납 혐의액 52억여원이 늘어났다. /연합뉴스

## 광주관광재단 설립안 행안부 심의 통과... 7월 설립 목표

광주시는 "광주 관광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광주관광재단 설립안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관광재단은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전담 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타당성 검토 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7월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직 규모는 경영기획, 마케팅 등 4개 팀 25명이다. 컨벤션 부로의 인력 15명을 승계하고

나머지 10여명은 새로 채용할 방침이다. 연간 예산은 재단 운영비 18억원, 민간 위탁 등 사업비 62억원 등 8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있는 컨벤션 부로나 리모델링 중인 전일빌딩에 들어설 남도관광센터를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재단 설립으로 이루어진 지역 관광자원을 연결해 확장된 도시형 관광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임진왜란 호남의병사 밝힐 문집 발굴

### 갈용 문흥계 장군 친필 서책 추정...당시 가문 10여명 의병 참여

3·1절 101주년을 앞두고 임진왜란부터 병자호란, 일제 강점기 만세운동에 이르기까지 대를 이어 의병과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가문의 문집이 발굴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관련기사 17면>

이 문집은 임란 당시 장흥·보성 지역에서 가문 전체가 의병을 일으켜 전라도 좌의병 결성에 기여한 갈용(葛翁) 문흥계(1571~1638) 장군 친필 서책으로 추정되며, 항중 호남 의병사 한 축을 담당하는 중임을 띠고 있다.

특히, 문위세-문흥계가(家)는 10여명의 가족이 의병으로 나설 만큼 충의가 대단했다. 이후 가문의 의병정신은 일제강점기 보성항구 항일운동에 가담했던 문창의, 독립운동을 펼쳤던 문남일 등으로 이어진다.

이번 고문서를 처음 발굴한 이는 광주에서 고문서 수집가로 활동하고 있는 손용선 씨다. 손 씨는 "25년 전 광주고미술

서점에서 옛 문집을 구입했는데 당시엔 성리학자 서책으로만 알았다"며 "최근 호남의병사를 연구하는 노기욱 박사를 통해 갈용 문흥계 문집이 확실하다는 견해를 들었다"고 밝혔다.

400여년으로 추정되는 문집은 실제 진본으로 추정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글씨의 처음과 끝의 먹물 농도가 동일하며 당시로서는 일반 서민이 사용할 수 없는 장지로 서책이 구성돼 있다. 또한 노란색, 빨간색, 청색, 흰색 등 컬러를 사용한데다 지질이 우수하며 오랜 세월의 흔적이 겉표지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직접 문집을 본 노기욱 호남의병연구소 소장은 "최근 보성군에서 편찬한 의병사에 문흥계 장군이 언급돼 있는데 이번 문집이 바로 친필로 추정되는 옛 서적이 확실하다"며 "이 문집을 매개로 전남 의병사를 총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흥계 의병장은 고려시대 목화씨를 들여온 문익점의 10대손이다. 1571년(선조 4) 1월 29일 장흥부 신당촌에서 풍암(楓菴) 문위세의 넷째 아들 중 넷째로 태어났다. 성장해서는 갈두리로 옮겨 거주했기에 호를 갈용으로 지은 것으로 보인다.

갈용의 네 형제는 모두 임란이 발발하자 의병에 참전해 임진 선두 원공공신에 녹훈됐다. 특히 문흥계 장군은 임란 최초 육지 전투인 이치대첩에서도 권율장군과 같이 참전에 혁혁한 전공을 거뒀으며 1597년 정유재란에도 참전해 왜적을 크게 물리쳤다.

호남의병 관련 책을 집필하고 있는 양성현 작가는 "호남의병들은 나라를 구하는 일념으로 너도나도 의병에 출장했다"며 "문위세-문흥계가 가문은 모두 10명의 가족이 의병에 나선 충의의 가문"이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전남연구원장 박재영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임명절차 진행

지난 18일 청문회를 거친 제4대 광주전남연구원장 박재영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의원 각각 5명씩 10명으로 구성된 광주전남연구원장 인사청문위원회는 19일 전남도의회에서 장시간 논쟁 끝에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장재성 광주시의원 등 일부위원들이 지난 18일 열린 청문회에서 공식 퇴임 후 박 후보자가 본직직을 담양에서 수도권으로 옮긴 사실 등을 지적하면서 막판에 논란이 불거졌으나, 보고서 채택 불발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위원들은 "(박 후보자가) 오랜 기간 행정경험을 축적했고 연구원 쇄신을 위한 열정과 의지는 강하다"면서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기된 우려사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경과보고서에 담았다. 채택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도의회 의장 결재를 거쳐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로 승부된다.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김형호 기자 khh@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니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돈되는 부동산(NPL)과 실전경매**

**14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공개 강의 일시 ●  
조선대 : 3월 19일(목) 주간 10시, 야간 7시

주식투자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채테크!!  
소액투자로 고수의 볼.

**2020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2020년 2월 1일~ 2020년 2월 28일  
-교육기간: 2020년 3월 19일~2020년 6월 11일  
매주 목요일 주간10:00~12:00 야간 7:00~9:00  
-수강료: 22만원(3개월)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상담지도교수: 경영학박사 송용욱  
H. 010-9416-1200, T. 062)230-7700-2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 시: 2020. 3. 3(화) 오후 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0. 2. 25(화) 오후 7시.
- 장 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공장부지 매매” (금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 대지 14,916.9㎡, 건물 998㎡(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 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 건물 일부 임대 중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약 700㎡)  
■ 매월 4백만원 이상 수입(임대료 및 태양광 수익)  
■ 태양광은 대출 없고 순수익임

**※ 매매가 25.5억 ※**

**인하건설(주)**  
010-3605-0214  
062)655-4840